



순창군 섬진강 문화예술 다남길 조감도

섬진강에 문화·예술 입히다

문체부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섬진강 문화예술 다남길 사업' 착수

순창군이 섬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예술체험 문화마을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한 '섬진강문화예술다남길' 사업이 본격 착수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군은 현재 강천산과 온천관광벨리, 고추장민속마을, 투자선도지구(발효테마공원), 건강장수연구소 일랜드 등에 편성된 1일 관광벨트를 등부권 섬진강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 체험형 체류 관광지로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한창이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섬진강문화예술다남길사업'은 문체부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국비 28억원을 포함, 사업비 5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014년부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인 문체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오랜 노력 끝에 지난 2015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에 반영시켰다. 이후 2018년도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 기본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최근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주된 사업으로는 관내 섬진강 24km 구간을 4가지 테마로 구성해, 동계면 구미마을 '한옥예촌', 적성면 구남마을 '섬진강미술촌', 유등면 오교리(체육공원) '강변예술터', 풍산면 향가마을 '소울터널 무인공방' 등을 조성한다.

군은 섬진강 곳곳에 문화예술 거점을 만들어 자전거라이더와 관광객, 지역주민에게 문화와 예술이라는 테마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정주시장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보탬이 되도록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섬진강변의 용굴산자연휴양림과 섬진강마실휴양숙박시설, 섬진강미술관, 체계산 출렁다리, 향가유원지(캠핑장) 등과 연계해 다양한 관광상품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문화와 예술을 이용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예술의 격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관광객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려한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폭력·폭언 악성민원엔 '비상벨' 설치

임실군, 민원실 13개소

임실군이 주민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벨을 설치한다.

군은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실 13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폭력과 폭언 등을 일삼는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비상벨 설치장소는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관내 읍면사무소 민원실 12개소에 내달 31일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비상벨은 민원실에서 민원폭력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누르면 인근 경찰서 112상황실로 실시간 상황이 전파돼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다.이같은 군의 대책은

최근 감정노동자에 대한 민원인들의 언어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가운데 공직사회 역시 이로 인한 우울증이나 회의감 등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군은 민원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을 기본으로 하는 응대를 최대한 강화하되, 악성 민원으로 부터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만족도 높아

센터 운영으로 부양 스트레스 줄여줘

순창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가 '예쁜 치매 쉽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쁜 치매 쉽터는 관내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약화 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오는 10월 30일까지 3주3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쉽터 운영 프로그램은 치매예방체조와 인지훈련 활동북, 실버교구활동, 작업요법, 미술, 공예, 음악활동 등을 운영한다. 특히 낮 동안 운영됨에 따라 치매환자의 보호자 및 가족의 부담 부담감으로 보호자들의 스트레스를 현격히 줄이며 보호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는 60세 이상 치매 선별검사와 치매 고위험대상인 75세이상 독거노인을 포함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한편 치매선별검사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치매 검진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또 치매안심센터 등록시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조호식품(기저귀, 영양제, 보습로션)등을 치매환자에게 지원하고 가족에게는 가족교실(헤어팅)과 가족지지모임 및 카페 운영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행복누리센터내 입주한 치매안심센터가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교육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행복한 치매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실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650-5247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영양취약계층 대상자 중 임신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한 출산과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정의 임신부와 영유아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에 해당되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보충식품 패키지를 월 2회 정기적으로 각 가정에 배달하는 지원서비스 및 영양사의 질 높은 영양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형진 보건의료원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위험요인 개선과 영양불균형 해소 등 건강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금연지원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생활실천 사업 등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금연, 영양, 절주, 신체활동, 비만예방 등 건강증진 사업 전개로 군민의 건강형태 개선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동대문구 공공급식에 농산물 공급

도농상생 업무협약

남원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 서울시 동대문구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을 시작했다.

지난 7월 남원시는 동대문구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5일부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동대문구에 첫 급식 식재료로 공급해 공공급식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란 서울시 자치구와 지방의 농산물 주요산지 지자체를 연결해 서울시 산하 자치구의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시설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남원시 농산물 공급업체는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맡게 되며, 동대문구에서는 서울시 해피브릿지와 행복공동체에서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참여 기관에 납품한다.

이에 따라 남원시에서는 동대문구와 도농상생과 먹거리 가치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자원공유 및 활용을 통해,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의 상호이익 증진 및 도농 친화적 교육과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 점검

남원시에서는 시내 일원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서, 남원시 4개 기관 7명이 참여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업소 및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커피점, 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일반음식점을 찾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

인했다. 점검에서는 ▲최저임금 시간당 7,350원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만18세미만자의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 및 관련서류 비치여부 ▲주휴수당 지급,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 주류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연령과 신분증 확인 및 유해약품 판매금지 표시의무 등을 계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 참가자 모집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친환경·자연생활 체험을 통한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자연치유캠프 참여 대상자를 무료로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난임부부가 자연적인 생활로 돌아가 건강회복을 통한 난임 자연 치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 동안 전북 진안에 위치한 온생명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캠프에서는 자연요법, 전통체조, 난임치유식 만들기, 자연식먹기, 국산도 호흡수련, 식생활개선 등 친환경, 자연생활체험을 통한 부부의 건강증진과 자연치유를 유도 자연임신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 부부에 100만원에 해당하는 합숙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중 전라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오는 14일까지 난임진단서와 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남원시 요천로 1285, 출산지원 담당), 이메일(qkrbqls@korea.kr), Fax(063-631-5933)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점은 620-7942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